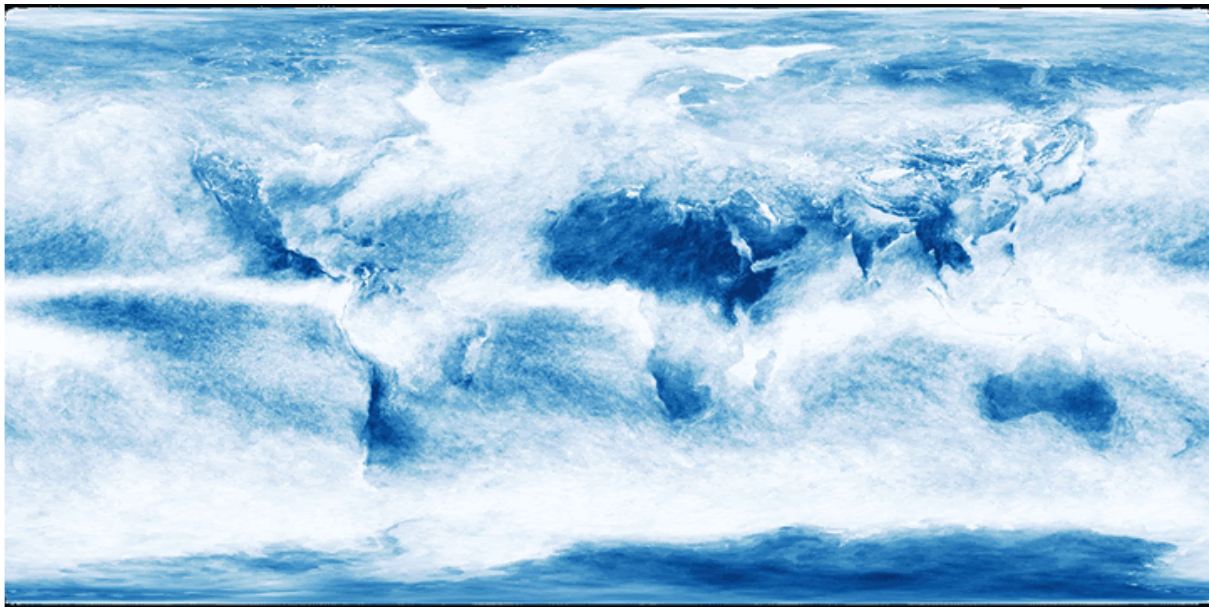


Voice of Sila



(Movements of Cloud in between July 2002 and April 2015 by NASA Earth Observatory, <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85843/cloudy-earth>)

1. At Nome¹, an old scalawag named Najagneq.

The fifth Danish Thule Expedition (1921-1924) crossed arctic North America. The explorer Knut Rasmussen, who conducted this journey, met Shaman Nazagnek in Nome, a port city in western Alaska, USA. When Dr. Rasmussen asked him if he believed in any of all the powers he spoke of, he answered:

“Yes, a power that we call Sila, one that cannot be explained in so many words.

A strong spirit, the upholder of the universe, of the weather, in fact all life on earth- so mighty that his speech to man comes not through ordinary words, but through storms, snowfall, rain showers, the tempests of the sea, through all the forces that man fears, or through sunshine, calm seas or small, innocent, playing children who understand nothing. Children hear a soft and gentle voice, almost like that of a woman. It comes to them in a mysterious way, but so gently that they are not afraid; they only hear that some danger threatens. And the children mention it as it were casually when they come home, and it is then the business of the angakoq to take such measures as shall guard against the peril.

When times are good, Sila has nothing to say to mankind. He has disappeared into his infinite nothingness and remains away as long as people do not abuse life but have respect for their daily food. No one has ever seen Sila. His place of sojourn is so mysterious that he is with us and infinitely far way at the same time.”²

¹ A city in Alaska, USA

² Campbell, J. (1976) *Primitive Mythology*, Penguin Compass, pp. 53, / Rasmussen, Knud. (1927) *Across Arctic America: Narrative of the Fifth Thule Expedition*. Conversation between Knud Rasmussen and Najagneq, the Yupik shaman from Nunivak Island, in Nome Alaska in 1924.

1. 미국 알래스카 주 서부 항구도시 노메의 나자그네크 샤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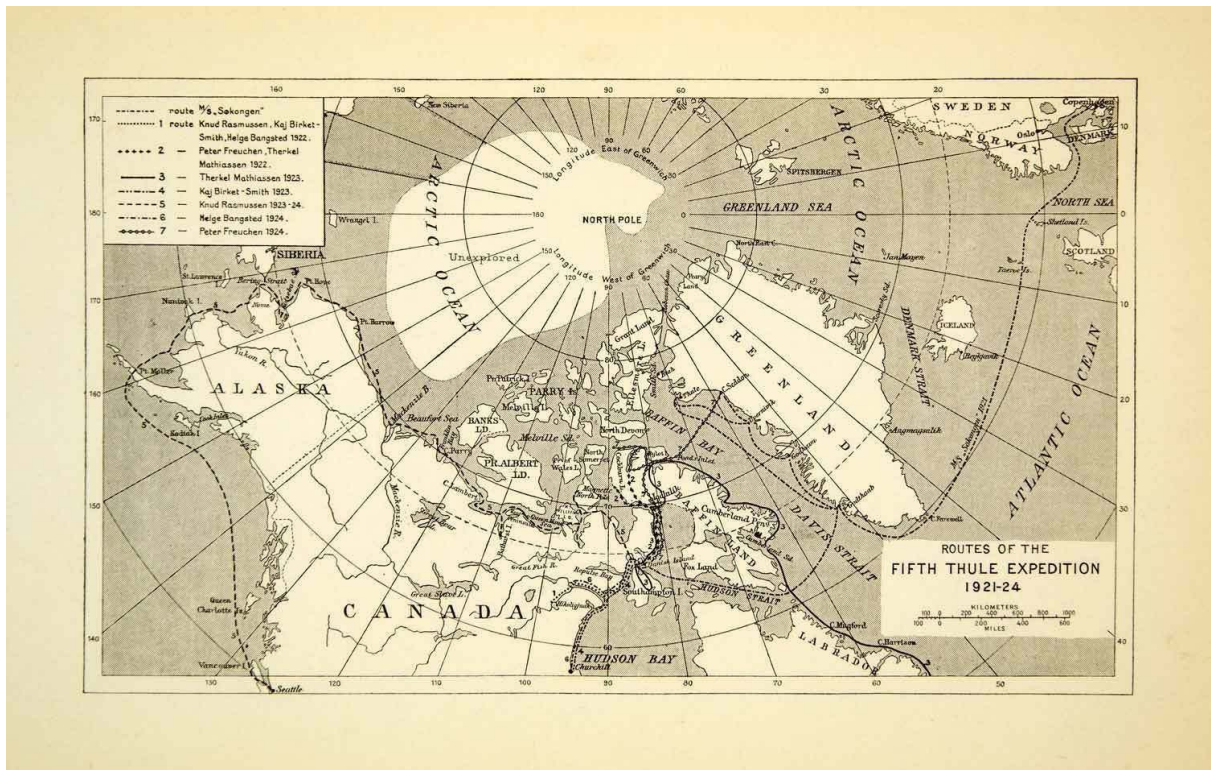
제 5차 덴마크 북극 탐험대 (1921-1924)는 북아메리카의 북극 지방을 횡단하였다. 이를 지휘한 탐험가 크누트 라스무센은 미국 알래스카 주 서부에 있는 항구도시 노메에서 나자그네크 샤먼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여러 힘들을 정말로 믿느냐고 라스무센 박사가 물었다.

"우리는 실라Sila라고 불리는 그 힘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은 우주와 날씨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관장하는 강력한 영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풍, 눈, 폭우, 거센 파도, 그리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힘을 통해서 옵니다. 또 그것은 햇빛, 고요한 바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뛰노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에 가까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오직 어떤 닦쳐질 위험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 실라는 인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무한한 무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인간들이 생물을 남용하지 않고 그들의 양식을 존중하는 한, 그 곳에 가능한 오래 머뭅니다.

어느 누구도 실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

'The Fifth Arctic Expedition' (<https://thuleatlas.org/index.html?module=module.overview>)



2. Voice of Sila 실라의 목소리

How do you feel about me?

Do you know how I can expose myself?

I am the wind.

I am the clouds.

I am the rain.

I am the air, cold or warm air.

I am a being that cannot be explained in any words.

I am a storm, snow, heavy rain, heavy waves.

I am also the warm sunlight and the calm sea.

Some say I am a strong power.

Some say I am the weather, the climate.

I blow the wind and move the seawater and air warm, cold, up, down, and sideways.

I was with the beginning of everything, and I will be with that change. If you are curious about Earth's appearance going back to 3 million years ago before the Ice Age, I'll tell you what I remember.

At that time, no people lived on Earth. It was before the Ice Age cycle began. Back then, there weren't many glaciers in the Arctic. There was ice on top of the mountain along the shoreline of what you call now Greenland. There was almost no ice in the Arctic sea. When summer came, the ice melted.

The sea level was higher than it is now.

The sea was covering the coastal cities and lower land on the continents.

Siberia and Alaska had lush forests instead of tundra.

And even before that, 47 million years ago, Earth's atmosphere was hot. At that time, there was no ice anywhere on the Earth. With an ice-free south and north pole, the seas were very different. The south and north pole were warm enough that it did not create deep cold waters. The ocean made a different circulation, and other types of lives could only live.

너는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니?

내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 지 알고 있니?

나는 바람,

나는 구름,

나는 비,

나는 공기, 차가운 또는 따뜻한 공기.

나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

나는 폭풍, 눈, 폭우, 거센 파도이자

따스한 햇빛, 그리고 고요한 바다이기도 하지.

누군가는 나를 어떤 강력한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는 날씨, 기후라고 하기도 하지.

나는 바람을 불게 하고, 바닷물과 공기/대기를 따뜻하게, 차갑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움직이게 하지.

나는 모든 것의 시작과 함께했고 그 변화와 함께할거야.

300만년 전으로, 빙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지구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을 들려주지.

그때는 이 지구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 빙하기의 주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어. 그때는 북극에 빙하가 별로 없었어. 너희가 그린란드라고 부르는 곳의 해안가를 따라 산 꼭대기에 얼음이 얼어있는 정도였지. 북극의 바다에는 거의 얼음이 없었고, 여름이 오면 얼음은 다 녹았어.

바다의 높이(해수면)는 지금보다 더 높았고, 땅을 더 넓게 덮고 있었어.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과 낮은 땅들은 바다에 잠겨있었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는 툰드라 대신에 숲이 무성하게 있었어.

그리고 더 이전, 4700만년 전에는 지구의 대기는 뜨거웠어. 그때는 지구 어디에도 얼음이 없었어. 빙하가 없는 남극과 북극과 함께 바다는 매우 달랐어. 남극과 북극은 따뜻했고, 그렇기에 심해의 차가운 물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어. 그때의 바다는 지금과 다른 순환을 했고, 다른 종류의 생명들만이 살 수 있었지.

After World War II, people started releasing so much carbon dioxide into the air.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that the Earth's air now holds is the same as the Earth's atmosphere three million years ago.

I reacted to it and started to shake myself.

The change in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s so sudden and immense that I haven't been able to keep up with it yet, but I am gradually making the Earth's conditions and the weather suitable for that amount.

The weather will be indefinite until the climate is again the same as 3 million years ago.

It has appeared as heat waves, droughts, wildfires, and prolonged monsoon rains, floods, and storms all over the world.

The change started with the melting of the arctic glaciers.

Soon every summer, the Arctic will be as free of ice as it was 3 million years ago. As the strong arctic winds weaken, warm air is heading north, and cold air is heading south.

As the frozen land in the north melts, the lands along the coast and the houses built on it will collapse.

When the long-frozen land melts, microorganisms that have frozen together in it will appear, and it will spread through mosquitoes, teeth, etc., which have become more active due to the warm climate.

Foreign mosquitoes, insects, and birds fly toward the north, and fish that lived in the south are coming up.

Arctic animals living near glaciers lose their place to live as the ice melts, and those who hunt them lose their food and work.

As the seawater warms and becomes acidic, the creatures living in the ocean now will have a hard time living.

As the seawater rises, people will move to live on higher ground.

People who have nowhere else to go will have to live in submerged houses.

Someone loses land and forests for farming,
Some people are no longer able to get clean water.

For some, all these changes are merely getting the weather warmer.
Maybe people will adapt to the changing climate.

I remember the arctic girls who came out of the tent every morning and checked me out
before hunting. I used to inform them of my plans in advance.

I remember the people who were afraid of gathering the abundant mass fruits grew in
clusters through the forest thanks to the outstanding balance of sunlight and rain of the year.
They shared it with the villagers, and the leftovers returned to the forest. They knew well. A
bountiful harvest in one place is with the drought in another. That one person's fullness is
with the other person's hunger.

They are the people who can hear my words and songs.

Do you remember how spring came, summer came, fall came, and winter went? Can you
remember when the birds fly back and the bees fly towards the flowers? All the promised
times will change, and all the creatures will have to find a new time.

Can you feel me? Can you feel my change?

Follow the path of earthworms and snails under the ground you are stepping on. Look what
the grass and trees look like where you live. Ask the people who grow the food you eat that
how they feel about this change.

Come out, see, hear, smell, and touch your surroundings. Come closer to me like that, Like
the arctic girls who came out of tents every morning and checked me out.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사람들은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내보내기 시작했다.
지금 지구의 공기가 간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미 3백만년 전에 지구의 대기가
가지고 있던 양과 같아.

나는 이에 반응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의 양의 변화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대해서 나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점점 그 양에 맞는 지구와 날씨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다시 기후가 300만년 전과 같은 상태의 지구가 될때까지 날씨를 종잡을 수 없게 될거야.
그것은 세계 곳곳의 산불, 긴 장마, 홍수, 폭풍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지.

이제 매 여름이 되면 북극은 3백만년전과 같이 얼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거야. 북극의 강한 바람들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북으로 향하고, 추운 공기가 남으로 향하고 있지. 북의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해안가의 땅들과 그 땅위에 세워져있던 집들이 무너지게 될거야.

오래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 그 안에 함께 얼어있던 미생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따뜻한 기후로 인해 더 활발해진 모기, 이 등을 통해 퍼지게 될거야.

북을 향해 이국의 모기, 곤충, 새들이 날아오고, 남쪽에 살던 물고기들이 올라오고 있지. 빙하 가까이 살던 북극 동물들은 얼음이 녹으면서 살 곳을 잃게 되고, 그 동물들을 사냥하며 살던 사람들도 먹을 것과 일을 잃게 될거야.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산성화면서 지금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은 살기가 어렵게 될거야.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땅이 높은 곳에 살기위해 이동하게 될 것이고

다른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물에 잠긴 집에서 살아야 하겠지.

누군가는 농사 지을 땅과 숲을 잃고,

누군가는 더 이상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누군가에게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날씨가 더 따뜻해지는 것 뿐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변한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갈지도 몰라.

나는 매일 아침, 사냥을 떠나기 전, 텐트에서 나와, 나의 모습을 확인하던 북극 지방의 여자아이들을 기억해. 그들에게 나는 내 계획을 미리 알려주곤 했지.

나를 느끼고, 나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

유례없이 좋았던 날씨 덕분에 푸른 숲 가득히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기억해. 그들은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남은 것은 숲에 돌려주었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 한 곳의 풍성한 수확은 다른 곳의 가뭄을. 한 사람의 배부름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포근한 봄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여름의 비가 찾아오던, 가을이 선선한 바람이 겨울을 알려오던 때를 기억할 수 있겠니?

언제 새들이 날아오고, 나비가 짝을 찾고, 벌들이 꽃을 향해 날아갔는지 기억할 수 있겠니? 약속되어있었던 시간들이 바뀌고, 모든 생물들은 새로운 시간을 찾아야할거야.

너는 나를 느낄 수 있니? 나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니?

니가 밟고 있는 땅 아래 지렁이와 달팽이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봐.

니가 살고 있는 곳의 풀과 나무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봐줘.

네가 먹는 음식을 키워주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봐.

이리 나와, 너의 주변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면서. 그렇게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봐.

매일 아침 텐트에서 나와 나를 확인하던 소녀들처럼.

